

## 목포항 경관 보며 드라이브 즐긴다

해수침수방지벽 낮춰 조망권 확보

그림 같은 목포항의 경관을 보며 시원하게 드라이브 할 수 있게 됐다. 목포시는 최근 목포 앞바다 조망권 확보를 위해 3천700만원을 들여 총무동 조산내화 앞에서 신안비치호널 간 해안로 265m에 설치된 호안 안전시설 겸 해수침수방지벽 높이를 대폭 낮추는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 방지벽은 높이가 85cm로 높아 승용차를 타고 갈 경우 바다가 보이지 않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시는 콘크리트로 된 방지벽 가운데 50cm 가량을 절거하고 35cm 정도로 낮아진 방지벽 위에 스테인리스 줄난간을 이달 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목포항 수위 상승으로 인한 해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이 방지벽을 설치했으나 그 동안 바닷물이 넘치는 경우가 없었다"면서 "50cm 정도 낮춰도 안전에 문제가 없어 조망권 확보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목포=임정훈기자 lyc@

## 8년제 무료 컴퓨터 교육

해남군, 초·중·고 100명 대상  
내달 1~18일까지 3주간 실시

해남군은 여름 방학을 맞아 학생 무료컴퓨터 교육을 실시한다. 군은 초·중·고생 100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1일부터 8월18일 까지 3주 동안 초급반은 컴퓨터 기초, 인터넷, 문서작성, 중급반은 파워포인트, 포토샵, 문서작성을 실시한다. 희망자 접수는 18일 부터 28일 까지 문화예술회관 5층 교육장에서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해남군은 그동안 지난 98년부터 올해까지 8년 동안 여름, 겨울 방학기간을 이용해 1천6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컴퓨터 교육을 실시했으며, 군민 3만8천여명에게도 교육을 실시했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 목포 택시업계 '1인1차' 확산

# 온종일 과로운전 '사고 위험'

일부 목포지역 택시회사들이 운전자 부족을 이유로 한사람이 하루종일 운전하는 '1인1차제'를 선호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등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목포지역 택시업계에 따르면 최근 운전자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2인1차제' 대신 일정금액의 사납금만 내면 개인택시처럼 운행할 수 있는 1인1차제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2인1차제의 경우 12시간 근무에 하루 8만6~7만원의 사납금을 회사측에 납부하고 있으나 1인1차제는 하루 사납금이 11~12만원선으로 회사측과 운전자 양측 모두 경제적 이점이 있다는 것. 그러나 1인1차제는 하루 8시간 근무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노동

### 시민안전 크게 위협 고객 서비스도 부실

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운전자 피로 누적으로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택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가 부실해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목포지역 A 택시회사의 경우 전체 20대 중 20%인 4대가 1인1차제로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A사 관계자는 "운전자 부족현상이 장기화되면서 회사의 경영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1인1차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손님이 가장 많이 불리는 출·퇴근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는 장점과 편한 시간

에 할 수 있는 점 등 택시 운전자들의 이해와도 맞물리면서 1인1차제 선호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 1일부터 LPG가격이 대폭 인상돼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1인1차제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택시회사들은 노사간 합의하에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노동법상 하루 8시간을 초과 휴일을 제외한 1일 12시간 근무를 할 수 없게끔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하루 24시간을 근무하는 1인1차제가 시행된다면 해당업체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하는 등 사법처리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목포=이성희기자 lsh@



무안 현경~해제 길 시야 확 뚫렸네

무안 현경면 가림리에서 해제면으로 진입하는 국도24호선 도로변에 우거졌던 아카시아, 대나무, 칙나무 등 잡목들이 말끔하게 정비됐다. 그 동안 이 구간은 커브길에 시야가 가려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민원이 자주 제기됐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 국유지 1년 무단점유 방치

"무허 주택 용인...숨방망이 행정" 비난

국유지를 개인이 무단 점유해 무허가 건축물을 신축한지 1년이 다되도록 방치되고 있어 숨방망이 행정이라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화순군 화순읍 장모(56)씨는 지난해 8월 화순읍 향정리 38-2번지 국유지 10여평 대지 위에 높은 담을 쌓고 내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무허가로 주택을 신축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지난해 10월께 현장 점검을 신청한지 1년이 다되도록 방치되고 있어 숨방망이 행정이라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화순군 화순읍 장모(56)씨는 지난해 8월 화순읍 향정리 38-2번지 국유지 10여평 대지 위에 높은 담을 쌓고 내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무허가로 주택을 신축했다.

주민들은 "불법 건축물로 인근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군이 사실상 불법을

용인하고 있다"며 화순군의 느슨한 행정을 비난했다.

군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쳐 자진철거는 물론 이행강제금 430여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청에 고발조치까지 했지만, 지금껏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용도폐지 등 가능한 적법 조치를 통해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를 위반한 무허가 건축물은 1년에 두 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국유재산법 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자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순창초등학교 학생들이 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 순창군은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 순창초등 주변 통학로 대폭 정비

방호울타리 등 설치키로

순창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이 대폭 정비된다.

순창군은 빠르면 이달말부터 사업비 1억5천940여만원을 들여 순창초등학교 앞 도로선형변경·점토블럭포장 607.96㎡, 아스콘포장 1161㎡, 보차도경계석 439m, 방호울타리 41경간, 표지판 7개소, 미끄럼방지포장 103.48㎡ 등 6가지의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순창초등학교를 제외한 관내 모든 초등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

업은 대부분 마무리 된 상태이다. 따라서 순창초등학교 주변 정비사업을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마무리하는 한편 기존에 추진했던 학교 주변 안전시설물도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취약한 어린이를 차량소통보다 우선 보호하고, 차량의 과속,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한 보도침범 등을 사전 제거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시설물 개선·정비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 /순창=이흥식기자 hslee@

## 제 50회 '4H 야영교육' 장흥서 19~21일 열려

'제 50회 자연사랑·농촌사랑 4H 야영교육'이 오는 19일~21일까지 3일간 장흥군 관산읍 천관산 체육공원에서 열린다. 4H 회원 및 지도공무원 등 3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야영교육은 친환경 농업 실천 다짐대회를 비롯, ▲친환경농업 활성화 결의문 채택 ▲친환경 농산물생산 사례 발표 ▲심신 단련훈련 ▲환경음악회 ▲한마음 공동체 훈련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송기동기자 song@

## 새 얼굴

"신속·공정한 대민업무 펼칠 것"

배용주 보성경찰서장



"지역주민을 최고의 고객으로 알고 신속하고도 공정한 업무집행으로 신뢰받는 보성경찰서 정립에 주력하겠습니다" 배용주 신임 보성경찰서장은 "당당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부터 정성을 다하는 대민업무"를 강조하면서 "직원 상호간의 화합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

다" 포부를 밝혔다. 경찰 대를 졸업한 배 서장은 수사권조정실무 추진전담팀 T/F팀, 부산청 보안과장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정애씨와 1남 2녀가 있으며 취미는 테니스와 등산. /보성=안규일기자 gjahn@

**세계최초 공기과학 병+난방기**

공기를 에너지로  
유지비율 1/3로  
유해가스를 0%로

사용효율을 일반전열기보다 2배 이상!

3년 무이자 대출

2005년 세계최초 공기과학 병+난방기

대리점: 광주시민회관 (062)331-6551

**사무용 가구의 모든것**

몰입현장으로 [www.hanboGAGU.com](http://www.hanboGAGU.com)

사무용의자 전문생산업체

**토치 광주총판**

사무용의자 전문생산업체

대리점: 광주시민회관 (062)331-6551